



# 2011년 12월 말 외환보유액 3,064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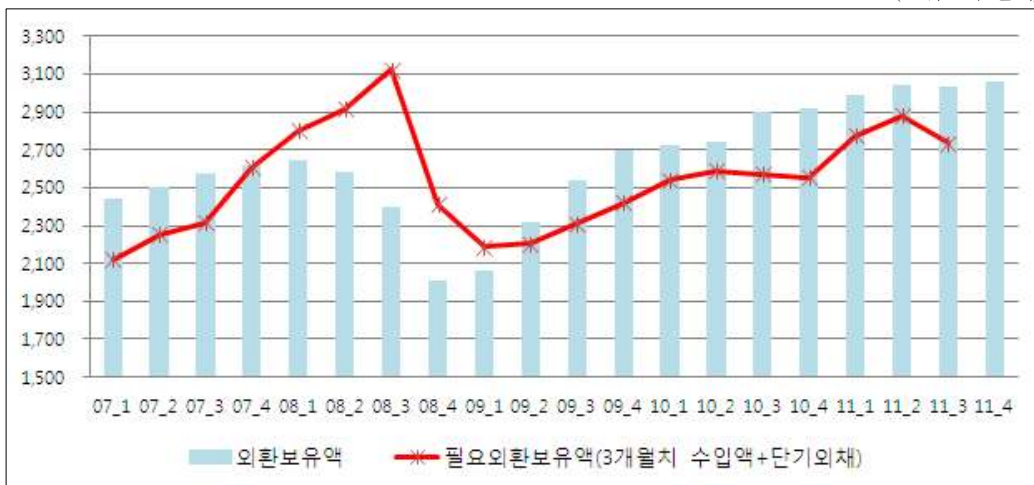
정인영 연구원

■ 한국은행이 2012년 1월 3일 공개한 2011년 12월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064억 달러임.

- 지난 10월 말 3,109.8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두 달 연속 감소 추세임.
- 이는 유로화, 파운드화 등의 약세로 인한 이들 통화표시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 감소에 주로 기인함.
  - 외환보유액 다변화를 위한 미 달러화 이외 기타통화표시 자산을 확대하는 가운데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이들 자산 가치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전월 말 대비 미 달러화에 대한 유로화는 3.7%, 파운드화는 1.0% 절하됨.
- 필요외환보유액 수준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렵지만, 널리 사용되는 3개월 치 수입액에 단기외채를 합한 규모를 그 기준으로 할 경우 금융위기 이후 2009년 2/4분기부터 2011년 3/4분기까지 우리나라는 이를 상회하는 규모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의 경우 외환보유액이 필요외환보유액에 미달하였음.

〈그림 1〉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추이

(단위: 억 달러)



주: 단기외채는 계약만기(original maturity) 기준으로 1년(365일) 이하 대외채무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무역협회.

- 항목별로는 유가증권 90.7%, 예치금 6.6%, SDR 1.1%, IMF포지션 0.8%, 금 0.7%를 보유하고 있음.

〈표 1〉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구성

(기말기준, 단위: 억 달러)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11월	12월	(12월 중)
외환보유액	2,622.2	2,012.2	2,699.9	2,915.7	3,086.3	3,064.0	(-22.3)
유가증권 <sup>1)</sup>	2,317.8	1,803.8	2,488.6	2,679.3	2,793.5	2,779.4	(-14.1)
예치금	299.9	201.0	163.4	189.9	214.2	202.9	(-11.3)
SDR <sup>2)</sup>	0.7	0.9	37.3	35.4	34.9	34.5	(-0.4)
IMF포지션 <sup>3)</sup>	3.1	5.8	9.8	10.2	22.0	25.5	(3.5)
금	0.7	0.7	0.8	0.8	21.7	21.7	(0.0)

주: 1) 국채, 정부기관채, 국제기구채, 금융채, 자산유동화증권(MBS, ABS).

2) IMF의 특별인출권.

3) IMF 회원국이 출자금 납입으로 보유하게 되는 교환성통화를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권리임.

4) ( )는 2011년 11월 대비 증감액임.

- 국가별 외환보유액 규모 순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11년 11월 말 기준 세계 7위를 기록함.

- 중국이 32,017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일본 13,048억 달러, 러시아 5,109억 달러, 대만 3,880억 달러, 브라질 3,521억 달러, 스위스 3,298억 달러, 한국 3,086억 달러, 인도 3,044억 달러, 홍콩 2,825억 달러, 독일 2,522억 달러 순임.
- 주요 외환보유국 중 엔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 달러 매입을 단행한 일본을 제외하고는 외환보유액이 전월 말 대비 대부분 감소함.

- 2012년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유럽재정위기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향후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한국은행 보도자료, 1/3)